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529>

JCCT 2022-5-66

수혜사업장 실태조사에 의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실효성 강화방안

Enforcement Measurement of safety and health technical support project for small-sized businesses by survey

안용로*, 윤영근**, 오태근***, 이명구****

Yongro Ahn*, Younggeun Yoon**, Taekeun Oh***, Myeonggu Lee****

요약 전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안전보건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재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립을 위해서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본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안전보건정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 사업, 실태조사

Abstract In order to minimize occupational accidents at worksites, the government is proposing and operating various safety and health policies.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apabilities of domestic workplaces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workplace, and in particular, safety management is difficult in workplac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resulting in a relatively high accident rate. Therefore, the government is operating the safety and health technical support project for small business sites to establish safety and health in small busin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vided a plan for substantiating the safety and health technical support project. through the condition survey of the workplace.

Key words : Safety and Health Policy, Small-sized Business, Safety and Health Technical Support Project, Condition Survey

1. 서론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의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계 지원할 의무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정부의 산재예방 책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은 엄격한 산재예방을 집행하며, 소규모 사업장은 지도와 교육을 시행하여 안전의식 및 안전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켜야 하며, 중규모 사업장은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정회원,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박사과정 (참여저자)
***정회원,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참여저자)
접수일: 2022년 4월 1일, 수정완료일: 2022년 4월 20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2일

Received: April 1, 2022 / Revised: April 20, 2022
Accepted: April 22, 2022
***Corresponding Author: thoh@inu.ac.kr
Dept. of safety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 Korea

[1]. 정부의 정책변화와 안전보건공단의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효과로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산업 재해율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이 시작된 1996년 이후에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도 80% 이상임을 그림 1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2]. 즉,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 감소가 전반적인 재해율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산재예방활동에 무지하거나 안전보건 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지도 및 교육을 확대하는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고양 고속버스터미널 화재사고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민간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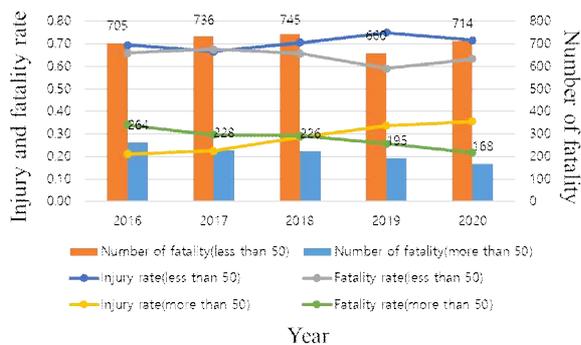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재해율 분포
Figure 1. Accident rate according to business size by year

표 1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산재예방 지도·감독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3]. 증가하는 소규모 사업장 수에 비해 부족한 산재예방 감독·지도 인력의 문제를 보완하고 산업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추진 목적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민간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하여 집중

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4].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 산업의 재해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으로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1. 연도별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 수
Table 1. Number of Labor Inspectors by Year

| year | number of inspectors | Number of workplace per person |
|------|----------------------|--------------------------------|
| 2020 | 581 | 4614 |
| 2019 | 549 | 4883 |
| 2018 | 451 | 5885 |
| 2017 | 400 | 6268 |
| 2016 | 358 | 6864 |
| 2015 | 349 | 6783 |

최근 안전보건환경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사고성 재해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및 공사금액 3억 미만 공사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은 외국인,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증가되고 잦은 이직 등으로 숙련도가 낮은 임시·일용직 근무자 양산 등으로 고용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재해 취약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재예방요율제 법제화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지도 사업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통한 체제 및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위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노·사 자율 규제적 중심으로 본격적인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있다[1].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일선 수행기관의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수수료 증가 없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 부실화 우려, 지도요원의 자격 조건과 사업장 출입 문제, 사업장의 기술지도 미이행,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문제점들의 방치는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에 의한 산재예방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5]. 따라서 수행기관의 다양한 요구 및 문제점의 해결, 수혜 사업장의 의견, 타 분야 민간사업의 정책 방향, 그리고 안전보건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수혜 사업장의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본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현장 실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안전, 화학, 보건, 건설 등 4개 분야에 대한 수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 조사의 내용은 수혜사업장에 대한 제공자료, 안전대책, 근로자 의식 향상, 산업재해 예방효과, 사업에서 보완점 등 5가지 항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방문 조사 시 사업주가 있는 경우는 사업주를 면담하고, 사업주 부재 때는 안전담당자와 면담을 수행하였으며 분야별로 총 55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안전 15개소, 화학 8개소, 보건 19개소, 건설 13개소).

설문 조사의 경우에는 수혜사업장에 관한 정보, 과거 수혜 횟수, 기술지원 및 안전교육 후 근로자들 안전의식 향상 효과, 기술지도 후 현장의 재해감소 및 안전관리 개선 여부, 본 사업이 효과적이지 못한 원인, 기술지도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원인, 기술지도 거부 원인,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객관식으로 질의하였다. 인터넷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246개의 수행기관을 통해 수혜사업장에 대한 설문을 요청하였으나 회신된 응답은 총 110명이었다.

III. 연구결과

1. 방문조사결과

1) 기술지도 및 안전교육 관련 자료에 대한 의견

전반적으로 기술지도 및 지도에 따른 안전의식 상향이 이루어져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지도 서비스 및 제공자료에 대해서도 큰 불만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관련 안전 스티커는 도움이 되나 포스터는 현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업종별 중점사항을 포함하는 책자로 제작하여 무료 배포를 희망하였으며 사업장 특성에는 부합한다고 하였으나 자료를 더 세부적으로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동영상, 삽화 등의 자료요청도 있었다.

2)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움이 되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재해 발생 후 작성해준 안전대책을 참고

하여 추후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었다. 자료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대책보다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매뉴얼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았다.

3)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위험성 평가 지도에 따른 공정별 직원들의 책임 의식,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방문하여 기술지도하는 활동만으로도 안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기계별로 나오는 동영상 자료가 근로자에게는 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특히 영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반응과 팸플릿 제작 배포 시 관련 법령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 기술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해 사례 중심으로 안전교육 및 기술지도가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4) 산업재해 예방 효과

산업재해에 예방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작업장 안전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영자 우선 교육의 필요성, 방문 횟수의 증가 등의 추가적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사후관리 문제,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및 지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산업보건 측면도 자료가 필요하고 벌금 위주, 처벌 중심보다는 잘하는 사업장에 보상 위주로 운영한다면 운영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5) 보완 사항

보완 사항으로는 주기적으로 매년 같은 기술지도 요원에 의한 기술지도, 방문 횟수의 증가 및 지속적인 관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모회사에서 위탁관리를 같이 받는 경우 기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2. 설문조사 결과

객관식 설문에 응답한 수혜사업장의 분야는 안전 분야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 화학, 건설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 분야의 경우,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응답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 소속된 정규직 인원, 비정규직 인원, 총직원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결과, 비정규직 인원은 “2명 이하”가 대부분이며, 총직원 인원수는 “10명 이하”가 49%, “10-20명” 25%, “20-30명” 11%, “30-40명” 10%, “40-50명” 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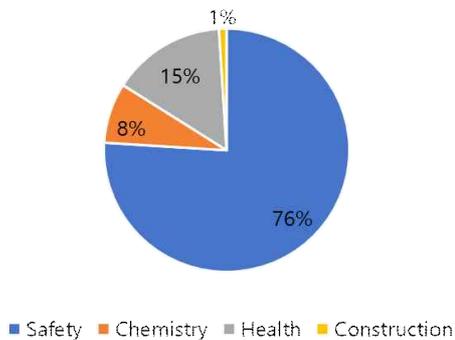


그림 2. 설문 응답 수혜 사업장 분포
Figure 2. Distribution of workplaces that benefited from survey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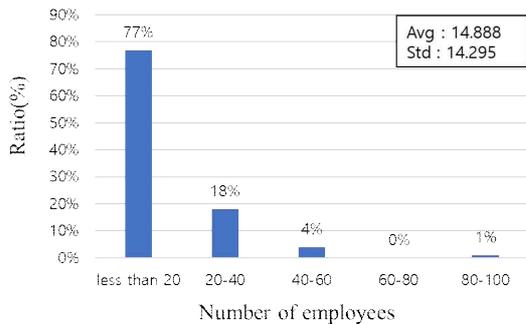


그림 3. 수혜사업장에 소속된 총 직원 인원수
Figure 3. Total number of employees at beneficiary sites

과거 1년간 받은 기술지도 횟수를 조사한 결과, 기술지도 받은 경우 “3회”를 받은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2회”, “1회” 순으로 기술지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술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도 38%를 나타내었다(그림 4).

기술지원 및 안전교육을 받은 후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대한 설문 69%가 향상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2%로 나타났으며(그림 5), likert 척도의 평균값은 3.89로 분석

되었다. 기술지도 후 현장의 재해감소 및 안전관리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78%의 응답자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그림 6), likert 척도의 평균값은 4.02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혜사업장들은 안전보건기술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재해감소 효과, 안전관리 개선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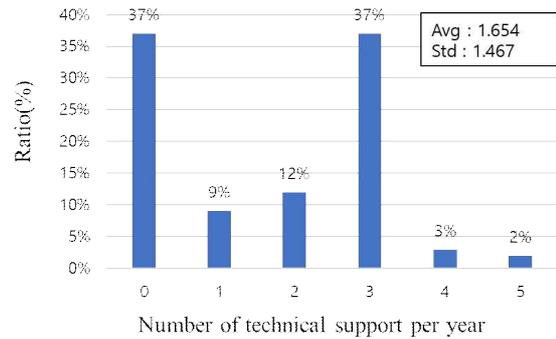


그림 4. 과거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 수혜 횟수(연간 평균)
Figure 4. The number of times of receiving safety & health support project in the past (annual ave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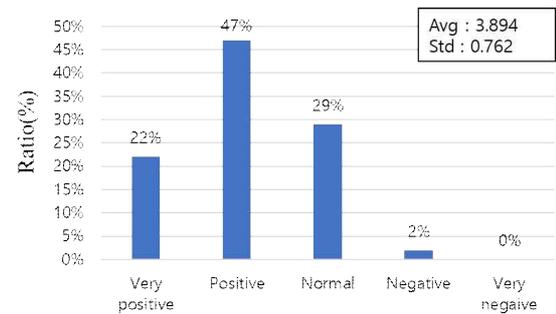


그림 5. 기술지원 및 안전교육 후 근로자들 안전의식 향상 효과
Figure 5. Effect of enhancing safety awareness among workers after technical support and safety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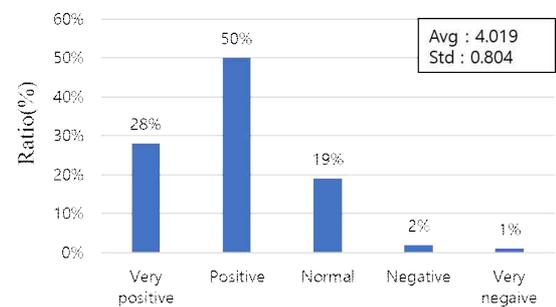


그림 6. 기술지도 후 현장의 재해감소 및 안전관리 개선 여부
Figure 6. Whether or not to reduce accidents and improve safety management at the site after technical support

안전보건기술지원 사업이 효과적이지 못한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 “지도기간(1년)이 너무 짧아 기술지도내용이 반영되기 어렵다”란 의견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지도 횟수(평균 연간 3회)가 너무 적다”란 의견이 22%, “기술지도기관의 지도내용이 사업장 실정과 동떨어져 있다”란 의견 19%, “기술지도기관의 지도내용이 실용적이기 보다는 대체로 형식적이다” 16%, “기술지도기관이 귀 사업장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견 4%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 따라서 수혜 업장에서는 지도기간과 기술지도 횟수의 부족을 개선하는 것이 제도의 효과 증진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안전보건기술지원 사업이 효과적이지 못한 원인
 Table 2. Reasons for the ineffectiveness of the private consignment system

| Survey contents | Ratio(%) |
|--|----------|
| The support period (1 year) is too short, so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contents of technical support. | 31 |
| The number of technical support (average 3 times per year) is too low | 22 |
| The insufficient technical support capability of technical support personnel | 0 |
| The support content of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s is generally formal rather than practical. | 16 |
| The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s guidance is out of sync with the workplace performance. | 19 |
| The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 does not reflect the opinions or requirements of your workplace. | 4 |
| Etc. | 8 |

기술지도 내용(지적사항)을 현장에 반영하기 어려운 원인을 묻는 설문에서 대다수 사업장들은 “관리적,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를 선택하였다(48%)(표 3). 다음으로 “반영 여부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19%),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안전관리자 선임 등)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16%), “형식적인 기술지원으로 인하여 본 사업장의 현장상황과 동떨어져 있다”(8%), “1% 미만 사업장에 대한 조치보고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5%) 의견을 선택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으로 인한 현장 반영의 어려움이 현장 기술지도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기술지도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원인
 Table 3. Reasons for difficult to reflect technical support

| Survey contents | Ratio(%) |
|--|----------|
| The support period (1 year) is too short, so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contents of technical support. | 31 |
| The number of technical support (average 3 times per year) is too low | 22 |
| The insufficient technical support capability of technical support personnel | 0 |
| The support content of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s is generally formal rather than practical. | 16 |
| The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s guidance is out of sync with the workplace performance. | 19 |
| The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 does not reflect the opinions or requirements of your workplace. | 4 |
| Etc. | 8 |

안전보건기술지원 사업을 귀 사업장에서 거부한 적이 있는지와 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표 4) 48%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거부한 사업장의 이유는 “기술적 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기술지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불시방문, 필요 없이 방문하는 등 사업장 업무시간에 저해가 된다”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표 4. 안전보건 기술지원 거부 원인
 Table 4. Reasons for refusal of safety and health technical support

| Survey contents | Ratio(%) |
|---|----------|
| None | 48 |
| Poor friendliness of technical support agency staff | 0 |
| The professionalism of the technical support agency staff is low | 3 |
| I don't feel the need for technical support | 10 |
| The content of privately-consigned technical support is far from reality. | 4 |
| Unexpected or unnecessary visits are disruptive to business hours | 5 |
| It becomes an economic burden to take action on technical points | 27 |
| Etc. | 3 |

안전보건기술지원 사업이 사업장에 내실 있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을 선택하라는 설문(표 5)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의견은 “기술지도를 받았을 때의 기업 인센티브, 감독면제 등의 제공”(53%)이었으며, 다음으로 “안전화, 안전모 등 실질적인 물질적 지원”

(20%), “형식적인 안전규정 설명 등이 아닌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15%), “기술지도원의 전문성 확보로 본 사업장에 맞는 컨설팅 제시”(5%), “단순한 방문 차원이 아닌 매 방문 시 준비된 내용이 있는 지도”(4%) 순으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수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기술지원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의 증진 도모와 안전능력 자립화보다는 아직까지 물질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업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
Table 5. Requirements to be helpful in the field

| Survey contents | Ratio(%) |
|--|----------|
| Providing consulting suitable for this business site by securing the expertise of technical advisors | 5 |
| Present a practical method rather than a formal explanation of safety regulations | 15 |
| A support with content prepared for each visit, not just a visit | 4 |
| Practical material support such as safety boots and hard hat | 20 |
| Providing corporate incentives, supervision exemptions, etc. when receiving technical support | 53 |
| Etc. | 3 |

IV. 결 론

방문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보건기술 지원 수혜사업장의 실태, 요구사항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수혜사업장 방문 조사를 통해 사업장 대부분은 지도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안전대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업이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도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의 평균값은 3.89이며, 현장의 재해감소 및 안전관리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4.02로 조사되어 수혜사업장 측면에서도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는 원인으로는 지도 기간이 짧아 기술지도 내용의 반영이 어려운 점, 기술지도 횟수가 적은 점, 지도내용이 사업장 현실과 차이가 있는 점, 지도내용이 형식적인 점 등이 조사되었으며, 자료에 대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실효성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지도 수혜 기간의 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기술지도가 몇 년에 한 번 수행되어 이벤트 성의 성격 또는 지도보다는 감독(지적)을 받는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을 받는 것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담 기술지도 요원과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도받는 것이 회사 시스템을 알고 소통이 되어 현장과의 거리감이 줄고, 중복되는 기술 지도를 피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및 의식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수혜 업장으로 선정하여 동일 지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지도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도기관이 연속적으로 선정 되지 않거나, 수혜 사업장이 연속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의 손실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혜 사업장에 대한 내용, 기술지도 이력, 지도 내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K2B 시스템과 연관시켜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방문 횟수 증대

기술지도 간격이 길어 효과가 감소하므로 사업장에 지속해서 자주 방문하여 안전에 관한 지도를 요청하는 사업장의 요구도 많이 조사되었다. 1회차 방문 시 교육 외적인 손실시간이 존재하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에 대해 모르거나 신경 쓸 여력이 없으므로 방문 횟수의 증대를 통한 사업효과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횟수의 증대는 50인 미만 소규모 전 사업장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규모별로 차별화하여 5인 또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 후 확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기술지도 내용의 차별화

제시된 개선 요청 사항 중 많은 내용 중 하나는 기술지도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작업장 환경에 맞는 맞춤형 기술지도를 원한다는 것이다. 작업 환경이 다르므로 사업주와 의논을 통한 맞춤형 지도와 시간을 더욱 할애하여 구체적인 대책 또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형식적인 기술지도를 지양하는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담당자 지정이 거의 없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맞춤형 기술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사업장 규모별 과업 내용의 차별화 방안 적용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교육 자료의 개선방향

대체로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에서 물질적 도움 외에 주목할 부분은 해당 사업장에 관계된 재해 사례의 제공, 안전대책을 잘 적용하고 있는 유사 사업장의 사례, 동영상 교육 자료 등을 보급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기술지원 사업과 연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공단 홈페이지 제공 재해 사례 자료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M.G. Lee, M.J. Jeong, "Strengthening the Efficiency of the Private Consignment Business in the Safety and Health Sector."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3, No. 4, pp.145-152, November, 2017.
- [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dustrial accident analysis", 2016-2020.
- [3] G.Y. Kim, J.H. Won, H.D. Lee, "Effect on Contracted-out in Small Construction Site for Accident Prevention,"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Conference*, pp. 242-242, February, 2015
- [4] H.C. Lim, N.K. Beak, D.Y. Kim, S.C. Jeong, "A Study on Improvement Plan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echnical Guidance Project for Safety Control of Small Construction Site,"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 19, No. 6. pp.79-85, November, 2018
- [5] E .J. Kim and H. S. An,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 of the Private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the Accident Prevention Programs for the Small Construction Sit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p. 255-262, December, 2014.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 연구사업임(No. 2021R1I1A2050912).